

(가)

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, 또,
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,
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,
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.
 바로 날도 지물어서,
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,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,
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,
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.
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, 누긋한 방에서,
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,
 달옹배기'에 북덕불'이라도 담겨 오면,
 이것을 안고 손을 쫓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,
 또 문밖을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,
 머리에 손가락지 베개를 하고 글기도 하면서,
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세김질하
 는 것이었다.
 내 가슴이 **팍** 메어 울 적이며,
 내 눈에 뜨거운 것이 **뽕** 괴일 적이며,
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,
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
 느끼는 것이었다.
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,
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
 는 것인데,
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,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
 일인 것을 생각하고,
 이것들보다 더 크고, 높은 것이 있어서, 나를 마음대로 굴러
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,
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,
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, 한탄이며, 가라앉을 것은
 차츰 **앙금**이 되어 **가라앉**고,
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,
 더러 나긋손'에 **찰랑찰랑** 싹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
 때도 있는데,
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, 무릎을 꿇어 보며,
 어니 먼 산 뒷얼에 바위 실'에 따로 외로이 서서,
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, 그 마른 잎새에는,
찰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,
 그 드물다는 궁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
 었다.

- 백석, 「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」 -

[시의 상황]

1. 아내와 집이 없어짐
2. 가족들과 멀리 떨어짐
3. 추운 날(겨울)임
4. 방에서 혼자 생각을 함
5. 감정을 느낌

[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]

1. 스스로가 슬프고 어리석음
2. 부끄러움
3. 외로움
4. 궁고 정한 갈매나무 생각함

(나)

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
그 방의 벽에는 **싸우라**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
햇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

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
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
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
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
햇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
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

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
나는 이제 녹슨 펜과 뼈와 광기—
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
이 가벼움 혹은 역사일지도 모르는
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

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
나의 입속에는 **달콤한** 의지의 잔재 대신에
다시 **쓰디쓴**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

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
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

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
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

- 김수영, 「그 방을 생각하며」 -

[시의 상황]

1. 방을 바꿈
2. 가슴이 메마름
3. 노래를 잊어버림
4. 나는 뼈와 광기의 모습
5. 펜은 녹슬었다

[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]

1. 실망함
2. 쓰디쓰다.
3. 많은 것을 잃어도 기쁘고 풍성하다(반어법)

※ 마지막행이 왜 반어인가요?
→ 시 전체 맥락에서 방을 바꾼 상황에 대해 -로 그려지고 있다.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행에서 그 상황에 대해 +로 생각이 바뀐다?

※ 이유 없이 싫었다가 좋고, 좋았다가 싫은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. 만약 그런 작품은 화자의 생각을 파악할 수 없어서 문제를 내기 곤란하다.

맥락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해라!

28번 문항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통사구조의 반복'을 찾자!

✓ (가) : '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, /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,' [O]

✓ (나) : '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/ 노래를 잃고 가벼움 마저 잃어도' [O]

2. 반복이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므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!

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추측'을 의미하는 문장을 찾자!

✓ (가) : 추측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. [X]

✓ (나) : '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겐다' [O]

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반어법'을 찾자!

✓ (가) : 반어법이 쓰인 문장을 찾을 수 없다. [X]

✓ (나) : '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/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' [O]

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계절적 용어'를 찾자!

✓ (가) : 싸락눈 → '겨울'을 의미하는 계절적 용어 [O]

✓ (나) : 계절적 용어를 찾을 수 없다. [X]

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지문에 '청자'가 글자로 나타났는지 찾자!

✓ (가) : 청자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고, 글자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. [X]

✓ (나) : 청자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고, 글자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. [X]

[학생들의 예상 질문]

- Q. ②선지 풀 때 (가)에 추측형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, 어떻게 확신하나요?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.
- A. 우선 추측형 문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**개념 공부를 확실히 하고, 자기 국어 실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수준까지 공부한 친구(=안정적 1등급)들이 아닌 이상 확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** 이럴 땐, 뒷부분 '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'는지 체크를 하거나, 아니면 해당 선지에서 고민한다고 시간을 뺏기지 말고 **다른 선지들 중 확실히 정답이 되는 선지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세요!**

[정리]

이전 칼럼에서도 항상 강조했지만, **개념 공부를 마치 단어 암기하듯 외워야합니다!**
 I hate you에서 hate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의미를 추론해야 하듯이, **선지의 용어들('반어적인 표현', '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', '표면에 드러난', '말을 건네는 방식')을 모르면 선지를 풀 때, 문맥상 느낌으로 풀게 됩니다.**(이런 것을 흔히 감으로 푼다고 합니다.) 따라서 **개념 공부를 하면 선지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고, 무엇을 판단할지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고(=빨간 글씨), 그 기준을 토대로 지문에서 O/X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.** 물론 애매한 선지들도 있지만, 95%의 문제는 O/X로 다 풀립니다!

따라서 **선지에 나오는 필수 개념어 공부**는 1등급이 되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!

★ 28번 문항에서 짚어볼 만한 개념 ★

<통사 구조의 반복>

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/ 그때에 내 말이 '있었노라.'

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/ '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.'

- 김소월, 「먼 후일」 中 -

→ **문장구조의 반복**은 유사한 문장구조 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. '~면 ~라.' 구조가 반복됩니다.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다를지라도, 문장구조 틀이 동일하여 운율을 형성된다.

<말을 건네는 방식>

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/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
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/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
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/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
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/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
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

- 신경림, 「나무를 위하여」 -

→ **말을 건네는 어투**는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면 99% 성립한다. '너희', '나무들아'와 같이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. 단, **청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니,** 수강하는 수업 혹은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 '말을 건네는 어투'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!

29번 문항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(가)에서 ‘팍’과 ‘핑’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‘팍’과 ‘핑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?

✓ ‘팍’은 가슴을 메어 오는 것과 관련 있고, ‘핑’은 눈에 괴이는 뜨거운 것과 관련 있다.

2. 화자는 어떤 심정인가?

✓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은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다.

✓ 가슴 메어오는 것과 눈에 괴이는 뜨거운 것이 부끄러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② (가)에서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?

✓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슬픔과 한탄으로 외로운 생각은 제외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.

2.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, 즉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가?

✓ 가라앉기 전 마음(슬픔+한탄+외로운 생각) vs 가라앉은 후 마음(외로운 생각)

✓ 가라앉기 전 마음 상태가 가라앉은 후 상태보다 더 심적으로 착잡하다.

✓ 따라서 가라앉은 후에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.

∴ 선지 판단 : 부적절한 선지

③ (가)에서 ‘쌀랑쌀랑’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‘쌀랑쌀랑’은 반복되고 있는가?

✓ 두 번 반복되고 있다.

2. ‘쌀랑쌀랑’이 감각 체험인가?

✓ 싸락눈이 창문을 치는 것을 듣고 봄 = 청각&시각 체험

3. 감각 체험은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?

✓ 그 체험을 통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함. = 연상 작용

✓ ‘쌀랑쌀랑’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’를 떠올리므로 화자는 ‘쌀랑쌀랑’을 활용하여 연상 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④ (나)에서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를 각각 ‘헛소리’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를 각각 ‘헛소리’와 연결하였는가?

✓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라는 말이 ‘헛소리’ → ‘헛소리’와 연결했다.

2. ‘헛소리’는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?

✓ 헛소리는 그 방의 벽에 남아있다.

✓ 그 방에 혁명을 남기고 왔다 → 헛소리와 혁명은 연관성이 있다.

✓ 혁명이 안 되고 방을 바꾼 ‘나’는 가슴이 메마르다고 느낀다.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슴이 메마른 상태를 공허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⑤ (나)에서 '쓰디쓴'을 '달콤한'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쓰디쓴'을 '달콤한'과 대비하였는가?

✓ '달콤한 의지의 잔재'를 대신하여 '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다. → '달콤한'은 되살아나지 못한 것이고, '쓰디쓴'은 되살아난 것'이므로 반대적인 성격 → 대비 O

2. '쓰디쓴'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인가?

✓ '쓰디쓴'은 바꾼 방에서 되살아 난 냄새 → '쓰디쓴'은 바꾼 방과 연관이 있다.

✓ 바꾼 방은 '방', '낙서', '기대', '노래', '가벼움'이 없는 곳. → 과거 방에 남아있는 것들.

✓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은 혁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, 혁명을 못 이룬 '나'는 '가슴이 메'마르고 '뼈와 광기'만 남은 모습이다. 따라서 혁명은 화자에게 +의 속성이 있는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→ 즉, 이전 '방'이 지향이고, 지금 '방'은 이전 '방'과 반대되는 성질이므로 지양으로 보는 것에 논리적 문제없음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30번 문항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, (나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(가)는 '전을 붙인 방을 '습내 나는 좁고, 누긋한 방'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전을 붙인 방을 '습내 나는 좁고, 누긋한 방'으로 묘사하였는가?

✓ O(8-9행)

2. '습내 나는 좁고, 누긋한 방'을 초라한 처지라고 볼 수 있는가?

✓ 세로 얻은 방의 상태가 습기있고, 좁고, 누긋한 방. 즉, 초라한 방에서 사는 화자

✓ 화자의 방이 초라하므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초라하다는 판단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② (가)는 '문밖에 나가지도' 않고 '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'를 '짜김질'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문밖에 나가지도' 않고 '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'를 '짜김질'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가?

✓ O(15행)

2. '짜김질'하는 모습이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가?

✓ <보기>에서 '방'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했다.

✓ 화자가 '짜김질'하고 있는 공간은 '방'

✓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짜김질한 뒤 부끄러워함 → '짜김질'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③ (나)는 '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'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'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'라는 말이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가?

✓ <보기>에서 '방을 바꾸는 행위'에는 '혁명의 실패에 따른 화자의 좌절감이 투영'되어 있다고 했다.

✓ 시에서 '나는 방만 바꾸었'다고 했으므로, 화자가 '그 방'을 남기고 왔다는 말은 '방을 바꾸는 행위'로 보는 것에 논리적 문제없음.
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④ (가)는 화자 자신을 '문창' 너머의 '더 크고, 높은 것'과 동일시하고, (나)는 '벽'을 '나의 가슴', '나의 사지'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(가)는 화자 자신을 '문창' 너머의 '더 크고, 높은 것'과 동일시하는가?

✓ '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,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'이라고 생각한다.

✓ 반면 '더 크고, 높은 것'이 '나를 마음대로 굴려'간다고 생각한다.

✓ 즉 화자 자신은 자신을 이끌지 못하는데, '더 크고, 높은 것'은 자신을 이끌고 간다.

✓ 따라서 화자 자신과 '더 크고, 높은 것'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.

∴ 선지 판단 : 부적절한 선지

⑤ (가)는 화자가 방에서 '굳고 정한 갈매나무'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, (나)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'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'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.

[1등급의 머릿속]

1. (가)에서 화자가 방에서 '굳고 정한 갈매나무'를 생각하는 것이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가?
 - ✓ <보기>에서 (가)의 '방'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.
 - ✓ '굳고 정한 갈매나무'는 방에서 한 생각이다.
 - ✓ 따라서 '굳고 정한 갈매나무(생각) = '방'에서 한 생각 =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
 2. (나)에서 화자가 방을 바꾼 후 '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'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가?
 - ✓ <보기>에서 (나)의 방을 바꾸는 것은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하였다.
 - ✓ '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'는 방을 바꾼 후 한 생각이다.
 - ✓ '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' = 방을 바꾼 후 생각 =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(= 화자가 선택한 삶의 자세)
- 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